



그 날의 기쁨 되새기며... 광복절 태극기 퍼포먼스 15일 제주시 관덕정 광장에서 제주시지역 청소년들이 '출 815를 추다' 광복절 태극기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한라포커스 축산분뇨와의 전쟁 수년째... 진통만 거듭

## 강력한 대책에도 불법행위는 여전

제주·서귀포시 197건 행정처분... 소송 5건 진행  
악취관리센터 통해 지속 점검 불구 근절에는 한계  
연료화 등은 기술력 문제로 중단... 인식전환 시급

도내 축산분뇨 수거 방류사태가 일어 난지 2년 4개월, 악취관리구역으로 지정된지 1년 5개월이 지났다. 지난 수년간 제주도정은 강력한 단속과 행정처분으로 축산분뇨 불법배출·악취와의 전쟁을 치러왔다. 하지만 불법배출과 악취가 근절됐다고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의견이 많다. 현황을 들여다보고 대책을 살펴본다.

▶강력한 처분에 소송으로 맞불= 축산분뇨 불법배출 무단배출 능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제주시의 경우 축산분뇨 수거 방류사태가 일어났던 2017년부터 올해까지 총 152건의 행정처분이 이뤄졌다. 이 중 허가취소 처분이 내려졌거나 내릴 예정인 사례는 6건이며, 사용중지 명령 6건, 폐쇄명령 2건, 고발 33건이 이뤄졌다. 서귀포시의 경

우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45건의 행정처분이 진행됐다. 이 중 고발된 사례는 총 19건이다. 악취 민원도 늘어나고 있다. 제주시는 2015년 246건, 2016년 455건, 2017년 491건, 지난해 982건, 올해 465건 등으로 조사됐다. 서귀포시 역시 2015년 162건, 2016년 249건, 2017년 295건, 지난해 518건, 올해 487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반발한 농가들은 행정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양돈농가들은 제주도를 상대로 한 지정 취소청구 소송에 대한 대법원 항고를 진행중이다.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면 국내 최초 축산악취 판례가 된다. 축산분뇨 수거 불법배출 사태 이후 허가 취소된 농가 4곳이 행정소송

을 제기. 3곳은 대법원에 상고했으며 나머지 1곳은 제주지방법원에서 재판 중이다.

▶대책 있지만 실효성은 의문=제주도는 2016년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가축분뇨 자원화와 악취저감 계획을 세웠다. 이후 악취관리지역과 악취관리지역 외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 등으로 양돈농가 278곳 중 113곳이 지정, 관리되고 있다.

다만 지난해 1월부터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사업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사업 등 각각 200t, 230t 증설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지하수가 오염되면 회복이 어렵고 악취는 삶의 질 저하로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농가들의 인식 전환 등이 우선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대부분의 농가에서 축산분뇨 점검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며 "소송의 경우 적극적으로 대처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소진기자 sj@ihalla.com

가 41%로 변화가 없는 곳도 있다.

또 제주도는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을 통해 바이오가스나 고형연료로 만드는 가축분뇨 에너지화 등의 대책을 내놨지만 기술력 등의 문제로 현재 유보된 상태다.

▶대체 있지만 실효성은 의문=제주도는 2016년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가축분뇨 자원화와 악취저감 계획을 세웠다. 이후 악취관리지역과 악취관리지역 외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 등으로 양돈농가 278곳 중 113곳이 지정, 관리되고 있다.

다만 지난해 1월부터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사업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사업 등 각각 200t, 230t 증설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지하수가 오염되면 회복이 어렵고 악취는 삶의 질 저하로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농가들의 인식 전환 등이 우선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대부분의 농가에서 축산분뇨 점검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며 "소송의 경우 적극적으로 대처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소진기자 sj@ihalla.com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 “분단 극복할 때 광복 완성,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될 것”

문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문재인(사진) 대통령은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평화로 번영을 이루는 평화경제를 구축하고, 통일로 광복을 완성하고자 한다”며 “분단을 극복해낼 때 비로소 우리의 광복은 완성되고,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5일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독립유공자와 각계각층의 국민, 사회 단체 대표, 주한외교단 등 1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74주년 광복절 정부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과거의 우리가 아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수많은 도전과 시련을 극복하며 더 강해지고 성숙해진 대한민국”이라며 “지정학적으로 4대 강국에 둘러싸인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밖에 없다. 우리가 힘을 가지면 대륙과 해양을 잇는 나라,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질서를 선도하는 나라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지정학적 위치를 우리의 강점으로 바꿔야 한다. 더 이상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주도해 나간다는 뚜렷한 목표를 가져야 한다”면서 “남과 북 사이 철길과 도로를 잇



는 일은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교량국가로 가는 첫 걸음이다. 한반도의 땅과 하늘, 바다에 사람과 물류

가 오가는 혈맥을 잇고 남과 북이 대륙과 해양을 자유롭게 만나게 된다면, 한반도는 유라시아와 태평양, 아세안, 인도양을 잇는 번영의 터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을 향해서는 “과거를 성찰하는 것은 과거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딛고 미래로 가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이웃나라에게 불행에 주었던 과거를 성찰하는 가운데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이끌어갈길 바란다”며 “국제분업체계 속에서 어느 나라든 자국이 우위에 있는 부분을 무기화한다면 자유무역 질서가 깨질 수 밖에 없다. 먼저 성장한 나라가 뒤따라 성장하는 나라의 사다리를 걷어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부미현기자

**알림**

**출산성려캠페인**

너는 엄마의 가장 아바의 자부심이야!

**아기의 탄생, 세상의 행복**

19일부터 출산축하코너 신설

“우리 아기가 태어났어요”

한라일보가 저출산 고령화시대를 맞아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고,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오는 19일부터 '출산축하 코너'를 게재합니다.

제주에 거주하면서 12개월 미만의 아기를 둔 부모나, 조부모는 아기(가족)사진과 소정 양식에 내용을 적어 보내 주시면 누구든 게재 가능합니다.

새 생명의 탄생을 축하하고, 세상의 행복을 가져다 줄 출산가정 모두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한라일보 홈페이지 출산성려 캠페인 배너에서 소정양식을 다운로드 이메일(baby@ihalla.com)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문의사항은 편집부 ☎ 750-2251)

오른기념 도입인 50% 전격 할인(8월 1일 ~ 8월 31일까지)

상상을 초월하는

# 세계 최대의 정크아트 테마파크

세계최대의 압도적인 스케일! 정크아트의 진수를 경험해보세요!

제주에서 만나는 정크아트의 세계

서프라이즈 테마파크는 문화 예술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재활용 소재를 활용한 정크 아트(Junk Art)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는 곳입니다. 재활용 소재로 만들었으나 그 테일과 크기는 어떤 작품 못지 않은 정크아트와 웅장함을 자랑하며 SES 세상에 이렇듯이에 반영된 광범 넓은만한 세계 수준의 예술 작품을 생동감 있게 영화 속 히어로들과 애니메이션 주인공들을 가까이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주간·야간 동시 오픈!**

온가족·연인들이 함께 즐기는 다양한 체험

서프라이즈 테마파크는 온가족,연인들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실의 작품 외에도 아트전시관과 영상체험관의 AR/VR 등 다양한 체험은 우리 아이들이 상상력과 오감을 자극시켜 기억에 남는 좋은 추억이 될 것입니다.

**SURPRISE THEME PARK**  
**서프라이즈 테마파크**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조로 2243  
☎ 064-783-7272  
🕒 09:00~23:00(하절기) 🕒 09:00~22:00(동절기)  
🌐 http://surprisethemepark.com